
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6. 10.(목) 배포</p>			
보도일	<p><b>2021. 6. 11.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/b>  <b>인터넷·방송·통신 6. 10.(목) 12:00 이후 보도 가능</b></p>				
담당과	재외동포교육담당관	담당자	과장	최보영	(☎ 044-203-6799)
			사무관	김영권	(☎ 044-203-6798)
			교육연구사	한세준	(☎ 044-203-6794)
			교육연구사	반정민	(☎ 044-203-6786)

## 해외 초·중등학교에서 참조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·확정 및 한국어 교재 개발 본격 추진

- ◆ 해외 한국어 채택국에서 참조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·확정
- ◆ 한국어 교육과정에 기반한 범용교재, 보조교재,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 지원을 통해 체계적·전문적인 해외 한국어교육 기반 마련
- ◆ 방탄소년단(BTS)의 지식재산(IP)을 활용한 보조교재 개발로 학습 동기 제고 및 효과적인 교수학습 지원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각국의 초·중등학교 한국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 초·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(이하, '한국어 교육과정')을 개발·확정하고 이에 기반한 다양한 교재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다.

- 초·중등 학령기 단계의 한국어교육이 국가 간 지속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,
-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은 한국어가 각국의 공교육 체제에서 한국어가 정식 외국어 과목으로서 안정적으로 교육·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

-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통해 현지 한국어교육의 참조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외국어로서 한국어가 제도적으로 채택 및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## 「해외 현지 초·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」 개발 및 제정

### ◇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 및 절차

-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,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교육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, 현지 초·중등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부재하여 한국어 과목 채택 등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.

※ 한국어 채택교 : (2018년)28개국1,495교→(2019년)30개국1,635교→(2020년)39개국1,669교

※ 한국어 학습자 : (2018년)12만4,840명→(2019년)13만965명→(2020년)15만9864명

-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한국어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가 협력하여 현지 교육상황에서 참조할 수 있는 해외 현지 초·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.

-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중심으로 60여 명의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이 연구·검토진으로 참여하였고, 온라인 공청회, 검토·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발 완료되었으며,

※ 추진경과 : 해외 초·중등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착수(2020.9월) → 온라인 공청회(2021.1월) → 해외 한국어 교육과정 검토자문위원회 개최(2021.3월) →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 및 수정·보완(2021.4월)

- 향후 교육부 누리집에 게재하고 현지 공관 및 한국교육원을 통해 해외 현지 교육기관에 보급·안내할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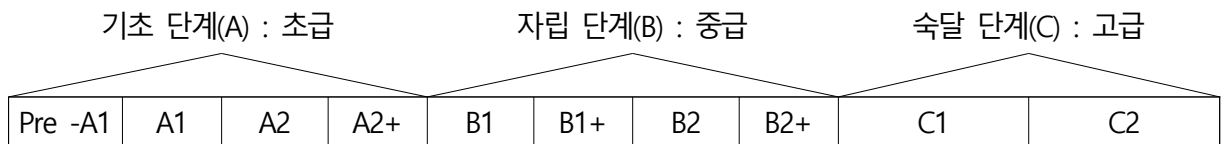
## ◇ 한국어 교육과정의 의의

- 이번 한국어 교육과정은 국제통용성\* 확보를 위해 주요 한국어 채택국에서 외국어 교육 기본 틀로 활용되는 유럽공통참조기준(CEFR)을 준용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에 선진적인 외국어 교수법을 적용하고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교육 내용 개발을 용이하게 하였다.

\* 학생의 성취수준에 대한 해석이 국제기준에서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상태

※ 유럽공통참조기준(CEFR) : 유럽의회가 유럽 각국에서의 언어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개발한 언어교육 프레임워크로서, 국제 통용성을 지닌 언어 능력 6등급체계(A1, A2, B1, B2, C1, C2)와 각국에서 언어 교육과정 개발 시 참조할 수 있는 성취 기준 제시

- 특히, 유럽공통참조기준의 6등급체계(A1, A2, B1, B2, C1, C2)에 세부등급(Pre-A1, A2+, B1+, B2+)을 추가하여 10개 등급(초급 4단계, 중급 4단계, 고급 2단계)으로 구분하였으며, 이는 제2외국어 과목 수업시수가 적은 초·중등학교의 상황을 반영하여 초·중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한 것이다.



< 해외 한국어 교육과정 등급체계도 >

## 「해외 현지 초·중등학교 한국어 교재 개발·보급」

### ◇ 한국어 교재 개발의 의의 및 절차

- 교육과정 개발의 취지를 살리고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국제한국어교육재단과 함께 지난 4월부터 해외 초·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에 기반한 한국어 교재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

※ 태국, 몽골 등 일부국가를 제외한 채택국에서 초·중등 학습자 대상의 교재가 미비하여 성인 학습자 또는 재외동포 학습자용 교재를 사용 중

- 이에 140여 명의 한국어교육 전문가가 개발진과 검토진으로 참여하여 해외 초·중등 학습자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하고 한국어를 쉽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.
  - 한국어 전문가, 교원 및 학생뿐만 아니라 한국문학, 국제협력, 언론,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‘해외 한국어 교재 개발 자문위원회’와 현지 한국어교육 관계자의 자문을 거쳐 현장 적합성과 완성도 높은 양질의 교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.

### ◇ 교재 개발 및 활용

- 이번 교육과정에 기반한 범용교재는 초·중등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초·중급 각 4단계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있으며, 익힘책, 교사용 지도서도 함께 개발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.
  - 또한, 교재에 정보무늬(큐아르 코드)를 넣어 해당 연결 주소를 통해 해당 내용을 동영상 등으로 제공하여 교수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.
  - 한국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한국 문화와 역사 요소를 심화·보충하는 ‘문화 교재’, 한류에 대한 관심을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‘한류콘텐츠를 활용한 교재’도 개발하고 있다.
  - 특히, 한류콘텐츠 활용 교재는 학습자들의 학습동기와 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정과 방탄소년단(BTS) 콘텐츠를 접목하여 개발하고 있다.
- 아울러, 기존 자체 한국어 교육과정을 가진 신남방 4개국\*의 경우, 현지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현지 언어와 문화, 교육과정을 반영한 맞춤형 교과서·교재를 개발할 예정이다.

\* 최대 초·중등 한국어 학습자를 지닌 태국,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채택한 베트남(2021년),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말레이시아(2016), 필리핀(2018)
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국제통용성을 갖춘 해외 초·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과 학습자 중심 교재는 현지 교육과정 체제 내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.”라고 말하며,
  - “증가하고 있는 한국어교육 수요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현지 교육제도 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지 교육당국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의 성장을 촉진하고 자생력을 갖춘 한국어교육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
【붙임】 2020년 기준 해외 초·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

□ 전 체 : 39개국 1,669개교 약 16만 명

- 신남방 : 7개국 266개교 5.5만 명
- 신북방 : 9개국 187개교 2.5만 명

(2020.12.31. 기준)

지역	국가별	2018년도(28개국)		2019년도(30개국)		2020년도(39개국)	
		학교 수	학생 수	학교 수	학생 수	학교 수	학생 수
<b>전 체</b>		<b>1,495</b>	<b>136,866</b>	<b>1,635</b>	<b>145,309</b>	<b>1,669</b>	<b>159,864</b>
신남방	태 국	119	37,401	138	38,109	165	45,905
	인도네시아	39	4,677	41	5,141	44	3,480
	베트남	7	1,014	14	1,865	12	1,965
	필리핀	10	591	26	2,044	18	1,990
	인도	-	-	14	493	13	434
	말레이시아	10	891	10	923	11	1,275
	라오스	-	-	-	-	3	100
<b>신남방 계</b>		<b>185</b>	<b>44,574</b>	<b>243</b>	<b>48,575</b>	<b>266</b>	<b>55,149</b>
신북방	몽골	24	4,127	28	4,129	24	4,614
	키르기스스탄	61	5,850	64	5,104	65	4,451
	카자흐스탄	13	496	21	799	21	616
	우즈베키스탄	37	10,470	37	10,055	29	7,844
	타지키스탄	2	221	2	269	2	219
	러시아	44	5,541	42	5,623	30	6,099
	우크라이나	8	821	11	1,031	12	795
	벨라루스	2	45	2	36	3	55
	투르크메니스탄	-	-	1	101	1	189
<b>신북방 계</b>		<b>191</b>	<b>72,145</b>	<b>208</b>	<b>75,621</b>	<b>187</b>	<b>24,882</b>